

98년 8차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98년 8차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3월 31일)

1. 보고 사항

- 1)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 2) 각 국별 보고

2. 논의 사항

- 1) 총여학생회 각국별 사업 계획(별첨 문서) → 공개/토-평점(강제)
- 2) 자치단체 총회 준비 모임 중간 정리(별첨 문서) → 사회... 7
- 3) 총여 10주기 행사 (별첨 문서)
- 3) 새내기를 위한 4월 2일 프로그램
- 4) 4월 계획서 함께 보기
- 5) 미인대회 관련 행사 일정 잡기
- 6) 한총련 대토론회와 관련하여 (제안)

3. 공지 사항

- 1) 장학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 2) 여학생처와의 만남 이번 주 수요일 6시 여학생처실
- 회장단은 못 감. 일어서 다녀오세요.

3. 다음주에는...

- 1) 자치단체 총회 실무 점검
- 2) 미인대회 준비 시작

의정 - "대표자 회의" → 여성대회준비위(중)
 전여대회평가
 여성대회 8A - 여성운동방향, 성폭력 자치규약
 연대사업 - 미인대회
 • 생리대자판기. →
 • 예산문제 → 5.5% + 6.2%
 5.0% → 5.2%

강지 - 장학금!!! / Where are you! 이원금.

하수강

강지

대조 - 문과국 경의.

편입 - 일정 잡 (5월 중순, 9월, 11~12월) / 조별 / 32명만

(sponsor / 후원회)

자료학술부에서 드립니다.(980331)

수신: 여성주의자들

발신: 자료학술부

1. 자료학술부의 지난주 활동

① 3월 28일-헌책방에 가서 여성학 도서 구입 (12권을 27,500원에 샀다!!)

② 3월 31일-2차 도서 구입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목록은 별첨문서 참고)

여성학

2. 자료학술부의 이번주 계획

① 생활도서관 운영방법을 확정짓고, 선전.

② 각 도서들마다 도장찍고, 분류기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리(책장도 정리)

③ 이과대 생활도서관 자료와 논지방 자료 확보

④ 도서 색인 만들기. 대출장부 만들기.

3. 생활도서관과 관련하여...

① 대출시작: 4월 6일부터

② 대출방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출가능

(그 외의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기간은 한 권 당 일주일씩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책은 최대한 두 권

-대출시에는 학생증을 제시하고 대출장부에 과, 학번, 이름, 연락처를 기재.

(대출장부는 조만간 마련할 것임)

-연체료는 한권당 하루가 지날 때마다 100원씩(논의가 필요할 듯.)

-책을 제외한 잡지, 자료집 등은 절대 대출 불가(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복사해서 갖고 가기)

-책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한달마다 각 단대 로비에 공고함

-중간고사, 기말고사 주 중에는 대출이 불가능함.

③ 자료실운영

-오후12시부터 오후5시까지는 담당자가 필요함(시간표에 표시하기 바람)

-우선(지킴이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총여학생회 집부들이 담당자를 책임져야 한다고 봐!

(하수, 강은 기본적으로, 강지, 장담, 따거, 미로, 피소, 하리... 사람이 너무 없군...)

④ 선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목록

-대출방법

-지킴이 모집(지킴이라는 말 대신에 더 적당한 말이 있을까?)

-선전은 수요일날 자보를 완성해서 목요일부터 붙이는 걸로.

⑤ 이과대 생활도서관과 논지방과의 연계 방안

-이과대 생활도서관 자료는 자료학술부가 알아서 받아오는 걸로 하고

-논지방 자료는 오늘이 알아서 해주시길...

총여학생회 총론 초안 by 오늘

(이 글은 작년 총여학생회 선거 자료집에 실린 총론을 수정한 것입니다.)

‘총여학생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좀 더 특별하게는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학생회 선거에 덩으로 얹혀지는 한 장의 종이 이상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혹은, 지닐 수 있을까? 더 트집 잡아 보자면 어떤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의문은 여기에서부터다.

하나.우리의 일상선 전쟁터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일상을 건디어 낸다는 것은 삶의 무게들을 매순간순간마다 짊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전 하나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튀어나오는 커피 자판기의 커피처럼 가벼운 듯한 일상은 사실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 또한 인스턴트 커피맛처럼, 친구들과의 수다와 학점 걱정과 남자 친구와의 연애 관계, 이런 저런 모임들에서의 일들과 인간 관계들... 그 분석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저 사생활일 뿐인 일상이 쓰디 쓰다고? 사실, 그렇다, 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즐겁기만 한 여자친구들과의 수다가 이런 저런 연유로 알게 된 남자 선후배, 친구들과의 술자리보다 다소 ‘덜’ 심각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들은 화장 얘기하고 남자 친구 얘기에 남들 홍보기 정신 없다고 그러다. 글썽... 학점? 그래..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학점이 좋아야 한가지? 여자들은 학점이 좋아도 취직하기 힘들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런 사정도 모르는지 시험 대 노트 빌려가면서 ‘여자들은 자기 것만 잘 챙긴다’고 뒤에서 속닥거리고. 남자 친구! 이 힘든 세상에 나의 반쪽을 얻었다는 충만함에 들뜨기도 하지만,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런 일상의 모습에 자기의 모습이 조금도 겹쳐지지 않는 이가 과연 우리 중에 있을까? 그저 ‘살이 어디 만만하겠냐’라고 좋게 좋게 넘기기에는 너무도 석연치 않다. 단지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갑갑함을 느껴야 한다면.

우리에게 정치란 너무나 먼 이야기 같다.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근엄한 얼굴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솔직한 느낌은 나랑 관계없다는 것이다. 갑자기 이야기가 한참 된 것 같기도 하다. 그게 내 갑갑한 일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케이트 밀레트가 그녀의 책 ‘성의 정치학’에서 쓴 말을 옮기는 것은 잘난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도 절절하여 가슴을 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녀의 친밀한 관계의 장면에서부터 정치적 관계라고 하는 모다 큰 문맥으로 옮기는 것은 대단한 비약이 있다. ‘성의 정치’라는 용어를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성관계를 정치적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가피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의미하는 상대적인 협의의 배타적 세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라는 용어는 권력 구조적인 제관계, 즉 한 무리의 인간이 다른 무리의 인간을 지배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나는, 우리는, 한 무리의 인간인 ‘여성’이다. 적어도 현실은 그렇다. 어느 한 인간이 ‘남성’인가 혹은 ‘여성’인가에 따라 이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위치 지워짐이 달라진다. 우리는 추상적 총위에서 ‘인간 일반’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보다 낮은 차원, 즉 일상적 수준에서는 우선적으로 ‘여성’

이거나 '남성'이다. 우리가 정치적 전략을 생각할 때 이것은 주체를 구성하고 담론을 가로지르는 (즉, 여성/남성을 성적 주체로서 사회화하고 그들의 욕망과 욕망의 충족 방식을 규정하는) 권력의 작용들이 정치적 논쟁의 중요한 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상이 전쟁터란 말은 이런 의미다. 일상, 수많은 의미망들이 교차하면서 상충되는 기호와 담론들이 각축, 경합, 협상하는 장이며 서로 다른 물질기반들이 드러나고 충돌하는 장이기도 하며 계급, 인정, 성적 선호, 성별 등 다양한 변수와 주체들이 맞물려 구성되고 생산되는 장이라는 것이다.

둘. 여성운동의 현재-연세 학내를 중심으로

1)성정치운동의 시작

95년 성정치 문화제는 그야말로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그 이전에도 총여학생회는 계속 존재해왔지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오히려 성정치 문화제에서 급격하게 터져 나왔다. 사실 이전의 총여학생회의 역할이란 중심운동¹⁾의 부차적인 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에 기대되는 역할, 그 정도였다. 그만큼 독자적인 사상적 기반과 활동 메커니즘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성정치 문화제는 그 후 급격하게 다른 캠퍼스도 영향을 미쳐 여성운동의 여러 가지 단위들, 예를 들어 위원회, 소모임, 연대모임들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2)여성자치연합-공존하는 다양성, 여성적 연대의 가능성

연세 내에서도 다양한 운동단위들의 활성화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97년 여성자치연합이란 이름으로 조직체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부차적인 운동단위로 끌려다니던 총여학생회에서 무언가를 하기는 힘들겠다는 판단과 함께 학생회 질서로 포괄되지 않는 급진적인 운동단위들과의 본격적인 연대체였다는 점에서 여성자치연합은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활동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나름대로의 활동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취약한 운동지반안에서 태동하는 여성운동에 대해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통일된 사상적 기반을 통해 성급하게도 가치절하를 해 왔다.

3)여성주의 총여학생회

현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는 이런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활성화의 맥락 속에 분명히 위치한다. 총학생회를 위시한 각 단대 학생회 단위에서 여성문제를 얼마만큼이나 풀어낼 수 있는가? 사회적으로 여성의 일상이 비정치적이고 개인적으로 읽히는 공/사의 논리 속에서 공적이고 전통적인 정치의 영역으로 보이는 '학생회'구조에 여성들은 단지 정치에 무관심한 단일한 주체로 상정된다.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운동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공적

1.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조국통일', '노동해방'이라는 핵심적 기치가 설명해 주듯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엽 현재까지 이것은 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사상이다. 사회구조의 무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적 지반은 학생운동의 절대절명의 진리로 위치하게 되고, 학생운동은 이러한 지반위에서 대사회적인 투쟁들을 벌여내고 있다. 그러한 투쟁의 역사과정은 학생운동의 이념으로써 '통일'과 '노동'이라는 단일한 명제를 채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학생운동의 사상적 지반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여타의 다른 운동의 영역은 통일과 노동이라는 운동에 종속되거나 부차적인(주변적인)운동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사실상 식민지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되어야만 여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나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십보 백보다. 존재하는 다양한 모순을 단일한 모순으로 치환시켜버리는 과정속에서 여성운동은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운동에 있어서도 주변적으로 위치지워져 온 것이다.

인 통로이다. 물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자치질서의 활성화는 총여학생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 모여봐라'식의 탈정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여성운동 특유의 정치성인 것이다. 한 사람의 여성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또 얼마나 다른 각각의 개인들인가. 우리들의 다양성이 가부장제 하에서 멋대로 선 그어지고 유형화되었던 것을 이제는 그저 넘기지 않으려 한다.

이제 제발 여성운동을 실천적 철학과 이론이 부재한 부문운동으로 위치짓지 말라. 현재 학생운동은 '위기'라는 말이 식상할 정도다. 다른 방식의 운동을 고민하고 다른 주제들에 조명을 비추는 우리의 운동에 대해, 학우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일상을 정치화시켜 내는 여성운동에 대해 학생운동은 숙고해야 한다. 학우들의 요구는 단지 학생운동의 세련됨이 아니다. 구호 하나 팩서너블하게 쓴다고 해서 학생운동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연세 안에서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적인 정체성의 확립과 여성운동 전략을 통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낼 것이며 하나의 운동세력 집단으로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운동안에서 표출할 것이다.

여성운동 이론 (초안) ⇒ 초안

① 하나의 독자적 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지향한다.

- 부문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한계

그 간 학생운동의 지배 담론은 노동과 통일이었으며 이 속에서 여성에 대한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버렸다. 그런데 여성운동이 배제/포섭되면서도 또한 노동/통일 담론의 동질성, 절대성 속에서 그 어떠한 다양성이나 차이도 인정되지 않았다.

- 민족주의 여성운동의 한계와 현재 전여대협의 위기

특히, 민족주의 담론은 그 본질적인 특성 상 여성운동의 논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가부장적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민족주의를 주 논리로 삼고 있는 현재의 전여대협은 조직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외부적 탄압(전여대협의 이적단체화)보다는 내부적, 필연적인 결과이다.

- 여성운동은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여성억압의 일차적 근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독자적인 운동의 전략과 운영원리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적 모순을 고정시켜 유일한 진리로 바라보지 않는다.

②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

- 현재 경제위기 속에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여성노동의 주변화

'고개 숙인 남자' 부류의 이데올로기는 이미 지난 총과업 때부터 시작해 현재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공과 사의 분리 속에서 이미 주변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은 노동의 유연화라는 면목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여성을 다시금 가정으로 되돌려보내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가 마치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 알뜰한 주부가 되면 해소될 것인양 떠들어대고 있다.

- 대중매체를 통한 '페미니즘'의 탈정치화

사회가 개방되면서 여성들도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대중매체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미시적, 신세대 담론을 통해 마치 페미니즘이 개성과 유행으로 만들어 탈정치화시키고 있다.

- 정치, 경제, 문화의 삼분화에 대한 비판과 그 경계들을 허무는 운동으로서 여성운동

공과 사의 분리 속에서 여성의 문제가 항상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그 삼분법 내에서 문화적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버린다. 그러나 여성운동을 통한 일상과 문화의 정치화란, 문화를 재정의라는 과정이며 또한 정치를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근대적 삼분화/경계설정들을 허무는 것이다.

- 다양성의 연대와 접합, 차이의 정치

③ 모든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반대한다. 국가적 위계질서

- 통치자/피통치자라는 근대적 이분법 속에서 여성의 주변화 1. 여성가장화

④ 일상의 정치 속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

-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서 일상 - 일상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정치와 복지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여성운동) → 총학생회

-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의 창출로서 직접민주주의 자치기관

⑤ 운동은 끊임없는 실험과 창조의 과정이다. 자치기관

자치기관

학내 여성전문언론의 필요성과 편집위원회의 위상

왜 학내 여성전문언론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동안 여성언론이 없었던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각종 여성지와 'If'지가 있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나 학내에서도 연세여성이 있었지요. 근데 왜 새삼 처음있는 일인양 학내 여성전문언론지를 창간한다느니, 독립한다고 하는지 이상할 것입니다. 마이웨딩, 세시, 칼라 등등의 여성잡지들이 전문언론으로서 여성운동에 이바지한다고 생각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적이 되면 되었지...) 새로운 포맷으로 시작한 "If"지 또한 그 대상독자의 광범위함과 간과할 수 없는 상업성에 의한 한계를 무시할 수 없겠지요. 연세여성을 예기해 볼까요? 발간이 중단된 연세여성의 현 상황이 그 한계와 열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총여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독자적인 역량 또한 축적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기관지로서의 연세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근래 2-3년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여성문제"에 대한 논의와 자치단체들의 활성화는 그동안 암울했던 학내의 여성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다양하게 펼쳐졌던 여성제와 문화제는 그 논의를 보다 활발하고 정교하게 발전시키지 못하고 센세이셔널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자치단체들의 노력 또한 기존의 구도 안에서 새로운 권력으로 확산시키기에는 아직 미약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언론에 의해 한쪽지씩 답아지는 여성문제가 아닌, 독자적인 여성의 목소리로 학내 여성운동의 움직임을 담아내고 이론화할 여성전문언론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가려져 왔다고 말해집니다. 기존의 남성적인 담론구조 안에서 여성들은 아예 발언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생존전략으로서 그 구조 안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고, 타언론들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도 구색맞추기에 불과할뿐 진정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성문제가 어느 특정한 한 분야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시비걸기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학내의 문제들에 대해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독립대상성)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지난 11월, 연세여성의 독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현재의 총여가 세워지면서 지금의 편집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작단계로서 총여와의 연계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전의 연세여성이 기관지로서의 한계를 가졌던 것을 절감하며 독립적인 여성언론으로서,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의식을 보다 확산시키고 학내 여성운동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성운동
학내

☞ 편집위원회 1년 계획안 ☜

Σ제목 : 두입술 (의미: 다양하게 열려 있고 유동적인 여성 정체성을 강조. 하나이면서 동시에 복수이며, 열림과 닫힘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나와 너, 우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어 나간다.)

Σ기조 : 독립적인 학내 여성전문잡지로서, 여성주의적인 문제의식의 정교화와 담론화를 통해 여성주의 권력을 확산시킨다.

Σ목표 : 1차례의 준비호와 창간호를 통해 역량을 축적시키고 체계를 정비하여 올해 안으로 안정적인 독립을 이룬다.

Σ98년의 일정

▶ 창간준비호 발행 : 5월 중순

▶ 신입부원 모집과 체계정비 : 준비호 발간을 기점으로 주력. 이후 창간호를 준비하면서 편집회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정교한 이론화 작업을 위해 노력한다.

▶ 창간호 발행 : 9월 초, 재정적 독립에 주력한다.

▶ 2호 발행 : 12월 말. 2호 발행과 함께 편집위원회의 독립을 완성하고 후진에 업무를 이양한다.

Σ창간준비호 기획

▶ 목표 : 편집위원회의 첫사업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편집위의 존재를 널리 알린다.

▶ 내용 : 특집 1 - 학내 여성전문언론지의 필요성

a. 왜 우리는 새로운 여성전문잡지를 만들려고 하는가.

b. 여성잡지들, 무엇이 문제인가.

c. 페미니즘 담론의 가능성과 여성적 글쓰기

특집 2 - 학내 여성운동의 흐름을 진단하며

a. 자치와 연대,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

b. 자치단체들의 소개글

c. 대담-자치단체 총회

기획 1 - 연애

a. 학내에서의 연애강박증/기피증

b. 페미니스트로 사랑하기

c. 이데올로기로서의 사랑

d.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은?

기획 2 - 공포영화와 여성-에일리언 다르게 보기

기타글 - 페미니즘 캠프를 다녀와서

인터뷰 : 극단 '마녀'와 여성문화예술기획단

새내기 여성학 커리

광고

자료학술국이 왜 필요할까요?

성정치문화제

이과대

대중

1. 여성운동 확산의 역사, 그러나...

학내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95년도의 성정치문화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총여학생회는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여성운동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의 여성운동은 학생운동의 큰 흐름들 중에 하나의 분파로서의 의미 밖에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성정치문화제를 여성운동의 새로운 촉발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성운동이 다른 운동의 종속적인 운동이나 하부적인 운동으로 여겨져 왔던 기존의 사고들에 파장을 일으키며 여성운동이 독자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과 동시에 그러한 문제의식들을 밖으로 표출한 최초의 계기였기 때문이다.¹⁾

성정치문화제를 통해 촉발된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성운동이나 여성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면서 여러 소모임이나 자치단체들을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러한 여성운동은 여성의 일상과 여성의 경험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단순히 사적인 공간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여성의 일상과 경험들을 어떤 식으로 정치화할 것인가에 많은 부분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표출되어졌던 여성운동의 모습들은 여성의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폭로하는 식이었고 이것은 대부분 문화제라는 형식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학내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논의들을 확장시키고 그 기반을 넓히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상이나 경험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되는 문화제 형식으로 표출해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의 여성운동의 확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의 일상과 경험에 대한 문제제기가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부장제에 대한 치밀한 비판이나 분석없이 그 문제제기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여성운동이 하나의 정치라면 그 정치를 어떤 식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론의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1) 물론 이러한 결론은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간과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95년에 성정치문화제가 열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전의 운동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여기에서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즉, 여성운동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둘째, 그 당시에 성정치문화제를 개최했던 주체는 총학생회안에 포함된 성정치국이었고 이것 자체가 앞에서 논의한 총여학생회가 다른 운동의 하부 조직으로서 사고되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 과정 상에서의 문제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운동의 내용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주지하기 바란다. 셋째, 성정치문화제는 그 당시에 많은 논쟁과 비판의 초점이 되었었다. 이 글에서 성정치문화제를 언급하는 것은 그 논쟁과 비판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이에 대한 평가는 다른 장에서 더 자세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고 본다), 성정치문화제가 이후에 학내에 끼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그동안에도 학회나 소모임에서 세미나라는 형식으로 여성학에 관한 학문적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러한 논의들이 밖으로 표출되거나 소통되지 않음으로써 이론적 논의들이 생산될만한 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운동의 영역이 많이 확장된 이 시점에서 여성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심화의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2. 여성운동의 질적인 확장을 위하여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료학술국에서는 ...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

-물론 위에서 말한 여성운동의 이론의 심화의 과정을 자료학술부에서 많은 부분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성운동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만이라도 하려고 한다....

(미완성된 글이고 정리된 글도 아니라서 많은 부분 거친 것 같다.

이 글의 논의에 대해 많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음)

자료학술국 기획 초안

1. 자료학술국이 왜 필요하지?

2. 98년 사업계획

① 기존의 자료정리 & 도서구입 → 여성학 생활도서관

총여가 건설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여성문제는 거대담론에 눌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여성학 관련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여성학에 좀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여성학 커리 뱅크 구축

위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문제나 여성운동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한 소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③ 타 여성학 생활도서관과의 연계

이과대 여학생회가 생도를 운영하고 있고 논지당에서는 책을 대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떤 책이 있고 어떤 식으로 대출이 가능한 지 아마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자료학술국에서는 분산된 자료들을 모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여성학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과대 생활도서관과

④ 학술제

학내에서 여성운동의 흐름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거의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연대사업국 계획(초안)

수신: 재밌게 사는 총여 사람들

발신: 장담

흔히들 총여 연사국이라 하면 난색을 표명한다. 기존의 연대사업과 총여의 연대사업을 매치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 그것이 여성운동 또한 조직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지 아님 연사국의 임무를 한정지어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쩌든 연사국의 기본적으로 할 일이 갖가지 그물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알기부?) 공유하는 일을 토대로 총여사업을 더욱 풍부화시켜주는 것이라고 감히 역설하면서 한 번 올해의 계획을 세워볼까 한다.

1. 98년은 어떻게...?

홀어져있던 여성운동이 96년부터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며 뭉치기 시작한 이래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유행과 같은 새로운 질서가 아닌 현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되는 과정 속에 그동안의 시행착오들은 그 질서를 단단하게 만드는 빗물같은 역할을 했다. 98년 현재 학내 여성운동의 그물망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으로 여성단위대표자회의(준)과 여성연대회의가 있으며, 서로가 상호보완하면서 심적, 물리적인 기반을 확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학내로 시선을 돌려보자. 작년 여성자치연합의 활동으로 연대 내에서 자치단체들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새롭게 여성운동을 시작하려고 모인 단체들이 올 해 준비를 시작한 반면 여성자치단체들의 공간적, 재정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각 단체들의 세내기 맞이가 어려움을 겪고, 나름의 특화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생사회에서 진보운동세력의 총체적인 난국은 제6기 한총련 건설을 기점으로 그 모습을 더욱더 확실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운동혁신의 주제가 올 한해동안 뚜렷한 모습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학원내의 진보적 발자취에 대한 이야기는 한낱 전설에 불과한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현재를 미루어보아도 엄한(?) 소리는 아닐 것이다.

올 한해 학내의 동향을 파악면서 연사국의 기조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각 ^{(1) 학과} ~~각~~ 연대활동과 학내 자치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적극 고민하면서, 학내 여성운동의 쟁점 뿐아니라 학생운동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에 중심적으로 참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를 제시, 실행하면서 현재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는 학생사회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선전해내는 것이 98 연사국이 학내에서 또한 학외에서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외부 여성 사회단체와의 연계는 먼저 정보수집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외부의 흐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총여와의 합의를 통해 잡아내어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여와의 합의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우리의 관점을 내용화하여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업계획

각 캠페인 상황과 정보, 학내 자치단체들의 정보 뿐 아니라 사회단체들의 상황, 정보를 수집하고 그 때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현재 연사국의 1인이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 참여하면서 다른 캠페인과 성폭력 자치규약제정운동에 대한 연대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대 내에서는 성폭자치규약제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학칙제정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며, 월별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안은 성폭력학칙제정위원회의 기획서를 참조하세요.^^

자치단체 총회 준비모임에서 확정된 총회 프로그램

1. 예산에 관하여

자치단체들은 현재 총여학생회가 총학과 진행시키고 있는 예산안 문제에 관하여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 애도래 공간에 관하여

자치단체들은 애도래 공간을 함께 쓰는 문제에 관하여 이번주 준비모임에서 애도래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총여학생회-자치단체 총회 확정 사항

1)언제-4월 11일 토요일 3시

2)어디서-푸른샘

3)프로그램

ㄱ.노가바-옴 친구들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공연

ㄴ.총여학생회, 자치단체 소개

ㄷ.총여학생회의 발제-전체 총론, 각국 사업기획, 예산안

ㄹ.자치단체들의 발제-전문화 아이디어와 아이템 생산에 대한 이야기(by 옴, 비온드, 이과대 여학생회), 자치단체들의 물리적 상황과 위상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애도래 공간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ㅁ. 지속적인 연석회의의 필요성과 날짜박기

ㅂ. 뒷풀이

4)자료집

ㄱ.일단 이번주 준비모임때까지 자치단체들이 글을 써오기로 하였으며 오늘 우리가 낸 기획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ㄴ. 총여쪽에서 맡기로 하였으니 구체적인 실무자와 일정을 잡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자치단체총회의 필요성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제10주기 행사와 관련하여

역대 총여학생회를 하셨던 선배 언니들에게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가 드립니다.

98년 3월 27일

올해 총여학생회가 10주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연세대학교 내에서 여성운동이 대중적으로 자리매김된지 10년이 되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10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학 내에서 여성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총여학생회 제10주기 행사는 지난 10년 간의 여성운동의 발자취를 되살려보고, 현재의 여성운동을 검토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과제는 총여학생회를 했던 선배 후배 간의 친분을 더욱 강화시켜 역대 총여학생회와 현재의 총여학생회가 함께 여성운동의 지속성을 고민할 수 있는 연대의 지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좁게는 사회에 있는 선배들과 현재 학교에 있는 활동가들 계간이 자신의 전망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넓게는 사회와 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5월 대동제 기간에 현재 총여학생회와 역대 총여학생회 선배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합니다.

이미 1대 선배님과 6대 선배님과 논의가 오고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주기라는 것이 단지 '의무' 내지는 '대의명분'이 아닌, 서로에게 그 의의가 깊게 세겨져야 한다는 것과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10주기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5월 행사가 10대 총여에게는 상반기 활동이, 역대 선배님들에게는 그 간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하게 된 고민들이 총화되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10대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지만, 5월 행사는 오히려 총화의 자리가 되기 보다 시작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예전에 비해 보다 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이 만나 서로 간의 '친분'을 도모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일시 : 5월 셋째주

장소 : 신촌에 있는 식당

대상 : 1대부터 10대까지의 총여학생회 간부 및 현재 여학생처에 계신 분들

2. 총여학생회 10주기를 보다 대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발전을 '음미'에 볼 수 있는 10월 '여성제'를 제안합니다.

작년 봄에, '여성자치연합'의 다양한 여성모임들이 제1회 여성제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을 개최해 학내 여러 모임들 간의 연대와 직접민주주의적 자치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여학생처와 여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여성문화포럼 'Where are You?'가 개최되어 학교와 교수님들, 학생들이 함께 여성문화의 활성화를 고민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제'를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더욱 대중적인 여성운동 활성화의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여학생회가 건설된 지난 10년 간의 여성운동의 변화와 역사를 되살려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10대 총여학생회의 올해 여성제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5월의 만남을 시작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가을 여성제 기간이 그 준비를 총화하는 자리, 그리고 장기적인 모임을 대중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 10월 첫째주 내지는 둘째주

〈학생운동과 연합체 운동의 혁신을 위한 연세 토론회〉 기획안

주최 : 35대 문과대 학생회, 35대 연세대학교 중학생회, 연세춘추

주관 : 35대 문과대 학생회

후원 : 후원은 발제를 맡은 단과대학으로 한다. (법과대, 이과대, 중여학생회(?))

발제 : 중학생회, 이과대 학생회, 법대 학생회

패널 : 연세춘추 취재부장, 중여학생회

사회 : 문과대 학생회장

장소 : 과학관 B130

일시 : 4월 7일 오후 6시

◆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개최됩니다. 한총련 대대회에 아무런 대중적인 논의없이 단지 대의원 자격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층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6기 한총련 건설에 대한 입장을 추출하기 위해서 또, 한총련이라는 조직이 대중운동 단위이기에 무엇보다도 대중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세 내에서 대중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토론회는 일차적으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의 위기라는 언명과 함께 존재의 위기에 놓인 학생대중운동의 새로운 흐름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학생운동의 혁신을 위한 대중적인 토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토론회 당일날 각 단위의 발제문을 취합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 자료집 제작과 선전을 위해서 -포스터 제작예정- 주최단위는 5만원, 후원단위는 3만 원을 각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자료집 제작을 위한 발제문은 4월 4일(토)까지 디스켓과 함께 문과대 학생회로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와 패널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출된 발제문을 바탕으로 토론의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론회를 진행해 나갑니다.

◆ 선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과대 학생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학생운동과 연합체 운동 혁신을 위한 연세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학생운동의 위기라는 언명이 나온지도 빗해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진정한 극복의*모습들은 언제나 사장된 채, 학생운동의 위기는 간부의 혁신, 주체의 혁신으로서만 언명되어져 왔고 그것으로서 해결되어져 왔다고 선언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96년 연세대 사태와 97년 한총련 출범식에서의 이석씨 치사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의 위기는 광범위하게 인식되어졌고, 이에 따른 대중의 이반은 그 어느때보다 가속화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일반 학우들의 반응은 97년 말에 진행된 학생회 선거에서 서울의 경우는 그 어느 정파도 다수의 지위를 차지 못하고 말그대로 '출추 전국시대'가 되었습니다.

현하의 학생운동의 위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고도 성찰적으로 반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학생운동의 진정한 출발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근원은 정권의 비이성적인 탄압보다도, 학우대중들의 저조한 집회참여 보다도, 더 이상 대중속에서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구호로서 학우대중들과 함께 학생대중운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학생운동 내에서의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서 경화되어서 어떠한 다른 정치적, 혹은 반대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금의 총련 질서가 하나의 구조로서 공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내부의 비민주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매커니즘으로 작용하여 그 어떤 지적도 지적의 정당성의 여부를 떠나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과 함께 하겠다라고 진지하게 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어떠한 대중의 목소리도 상층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자랑스런 선배들의 운동의 역사를 훼손하여 기층의 학우들과 유리되는 현재의 학생운동, 우리가 다시금 새로이 학생운동의 혁신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과대 학생회는 한국학생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예비할 지금의 운동주체들을 올바른 학생운동의 혁신을 위해 새로이 다가서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또한 올해의 학생운동이 더많은 대중의 동의와 지지속에서 바로서기 위해 한국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진전을 위한 모색을 위한 계획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문과대 학생회는 언제나 같이 할 것입니다.

일시 : 1998년 4월 7일 (화) 오후 6시

장소 : 추후 공고

· 연대의 새로운 공간을 향한 질주

(토론회를 위한 설문팀)

1. 학생대중운동에 있어서 학생회연대운동 혹은 연합체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질문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활동가들에게 나타나는 한가지 경향은 전대협-한총련이 11년 동안 물질적으로 이어온 관성에 의해서 연합체 운동의 자기근거를 찾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 활동가 스스로의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연합체 운동에 대한 질박함이 있는가? 단대 학생회를 이끌어 가는데 혹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펼쳐는데 있어 과연 연합체 운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근거를 찾아봅시다.

2. 연합체운동의 현재적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내려봅시다. 이는 운동의 주체의 상황과 함께 대중들이 지금의 연합체운동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 바로 지금의 연합체 운동의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내려봅시다. 특히 학우들의 경우는 더 이상 한총련=학생운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학생운동과 한총련 사이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연합체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논점을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3. 지금의 학생회운동 혹은 연합체운동이 위기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중노선, 정치적 지향성, 강령, 조직체계 등 평가지점을 세분화 하셔도 좋습니다.

-> 한총련은 96년 8월 연세대와 97년 출범식 사건을 거치면서 외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는 내부적으로 볼 때 그 출발 때부터 담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주체와 학우대중간의 괴리의 문제나 정치적 지향성의 문제, 민주적 구조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비상식적인 탄압은 그 위기의 폭발을 가속화시킨 것 뿐이었습니다. 현재의 연합체운동이 위기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4. 연합체 운동은 복원되어야 합니까? 복원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합체운동의 대중적 강화에 대한 생각과 지향해야 할 정치적 가치는 어떻게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까지의 한계나 오류를 극복하는 연합체운동의 바람직한 상은 어떠한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까지 전대협-한총련의 역사 내에서 관철되어져 온 정치적 가치는 반미자주를 근간으로 하는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중민주/노동해방을 자신의 정치적 가치로 하는 진영이 대립해 왔던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태적인 구도-흔히들 말하는 NL/PD의 구도-는 각기 상대의 정치적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략적 혁신의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이러한 이전의 정치적 가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현재의 한국사회의 정치적 재편의 방향에 맞추어서 새로운 정세인식에 기반하여 새로이 연합체 운동의 상에 걸맞는 정치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연합체 운동을 대중적인 논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해 봅시다. 단지 상층 중심의 논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에서 그러한 논의를 외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어떠한 가장 관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을 거치면서 연합체 운동이 재중운동 속에서 급격하게 붕괴한 이후 이를 대중운동 차원에서 복원하려는 시도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 거울 방학을 경과하면서 보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대자보를 통해서도 연합체 운동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중운동이 대중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듯이 연합체 운동 또한 대중운동 속에서 연합체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녹여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대 학생회의 차원에서는.

<학생운동 혁신과 연합체 운동 혁신을 위한 연세 토론회> 의 진행과 관련하여

● 진행방식

사회: 추후공고

진행 및 서기: 추후공고

-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발제문을 검토하는 시간을 5분 정도 갖는다.
- 발제시간은 발제자당 각 10분으로 한다.
- 발제가 끝나면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간단히 갖는다.
- 사회자는 발제문과 토론의 쟁점들에 기반하여 논점을 정리한다.
- 참가자들로부터 논의안건을 상정받아 토론지점을 더 정리하도록 한다.
- 사회자가 안건을 하나씩 상정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우선 발제자의 입장을 듣는다. 발제자 각각의 발언은 3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발제자들의 발언이 끝나면 논의를 참가자 전원에게 확대하여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 토론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대중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참가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도록 하고 되도록 많은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 안건당 논의는 적절한 시간으로 제한하여 진행하고 다음 안건을 위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진행한다.

● 토론의 쟁점들

연합체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있어 발제자 및 참가자들의 입장의 차이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활동가들이 학생운동 혁신 또는 연합체 운동의 진화, 새로운 모색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들을 각인하고 대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경우 그 쟁점 및 논의경로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모아내는 것이라 하겠다.

- 연합체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자기단위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연합체운동이 절곡으로 다가왔던 점, 또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던 점을 중심으로 학생회연대절서로의 한총련 운동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자.
- 연합체운동 혁신을 위한 실천으로 각 단위 활동가들이 벌여낼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가.
- 무엇보다 연합체운동에 대한 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대중적인 논의를 만들어 낼 것인가.

1년 간의 활동을 이어받아, 이제 본격적인 자치규약 제정운동으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학은 성폭력 박물관?

유치원 원장이 원아 100여명을 상습적으로 추행을 하고, 11살 짜리 소녀 가장을 마을 주민 14명이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례, 어느 여대생이 택시운전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자살한 사례....그래서 영예롭게도(!?) 세계 성폭력 국가 2위인 대한민국.

이러한 현실을 반증이라도 하듯 학내 성폭력 사례들은 끊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며, 학원은 점점 성폭력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다.

교수-학생 간의 수직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을 등에 지고 교수가 학생에게 행하는 성폭력 사건(우리 학교에도 있었지, 아마?)과 교직원이 학생을, 공권력이 학생을 또는 학생들 간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 사례들이 하나 하나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일상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학내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지겹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더 이상 참으면 안될 수 없다!

지난 96년 여름, 연세대 사태(법정학원 축제)에서 전경들이 여학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성폭력을 가해 약 9개 학교의 여성운동 단위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꾸렸었다. 이후에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넓은,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대체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당시 국민대, 성균관대나 서울대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나자 더 이상 침묵할 수만은 없었다.

97년 4월, 약 18개 학교 여성운동단위들이 모여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를 결성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활동으로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자치규약제정운동 -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성폭력 자치규약은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에 초보적인 물적 장치가 된다는 의미가 있으면서 또한 학생들의 힘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학생들의 자치권, 교육권 회복을 위한 운동이라는 의의도 있다. 작년 강의 시간에 여성을 모독하는 말을 일삼은 우리 학교 K교수, 술을 마시고 새벽 신촌 거리에서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어느 선배....성폭력자치규약은 단지 이들을 '처벌'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체계에 입각하지 않은 새로운 대학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여/성/학/회 제10대 총여학생회는 여성연대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세대 내에서도 진정한 남녀 공존을 위한 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을 펼쳐나가자 한다.

여성연대회의에서는 현재,

- ▶대학 사회 성인식 및 성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 ▶자치규약 초안 (완성안은 각 학교에서 그 학교 실정에 맞게 만들 예정임)
- ▶2학기 성폭력 근절 주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연세대학교에서도 진정한 남녀 공존을 이뤄낼 수 있는 자치규약제정운동을 학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것을 약속합니다!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는 다음 학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국민대 총여학생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서강대 여학생협의회(준)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수원대 총여학생회
아주대 총여학생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외국어대 왕산 총여학생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홍익대 총여학생회